제313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3년2월6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국방 현안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1
2. 국방 현안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 3

(14시12분 개의)

○委員長 劉承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전보되어 온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정두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장영복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 이현종 입법조사관입니다.

강건희 입법조사관입니다.

그리고 김병진 입법조사관의 업무가 변경되어서 행정실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 인사)

다음 입법조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김병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해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 징후와 관련된 국방 현안보고를 듣고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4분)

○委員長 劉承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수감기관에 대해서 감사한 사항과 그에 대한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2012년도 국정감사를 마친 후 전문위원실에서 마련한 보고서 초안에 교섭단체 간사위원과 협의를 거친 후에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작성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보고드립니다.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2012년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52개의 수감기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9개의 주요기관별로 요약해서 수록하였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107건을 선정 수록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劉承旼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제가 지난 공군본부 국정감사에 가서 공군본부가 군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부대 자체의 실수로 합격 발표를 했다가 취소한 억울한 사례는 구제되어야 한다, 더구나 그 젊은 청년의 과오라고 하는 것이 16년 전에 학생시위에 한 번 참가했다는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만큼 그다지 심각한 사안이 아니다, 범죄 혐의로 볼 때에도.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 기무사로부터 부적격 인사라고 하는 통보를 받아서 합격 통보를 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는데 이런 억울한 사정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 실시 내용 중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시정조치 요구사항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시정조치 요구사항에 들어가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잘 알겠습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태 위원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한 것 몇 가지 빠진 것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예비역을 일정 비율 활용하는 것과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훈단체의 예산 집행을 일정 비율만큼 수의계약으로 지원할 것, 그다음 임진왜란, 6·25 전쟁 시 대표적인 육군의 전승 전투에 대한 선양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육군에서 지원할 것과 해군 및 해령의 작전통신망 운영에 있어서 보안 준수 미흡한 것에 대한 보강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말씀하신 한 가지하고 방금 김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잘 알겠고,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자구를 수정해서 거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송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제가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방 획득체계와 관련해서 방위사업청이 현재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복수차관제로 바꿔 가지고 무기체계와 비무기체계를 국방부에서 종합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몇 차례에 걸쳐 질문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이 '이것은 복수차관제로 가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보고서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劉承旼 송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작년 국감 때 다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국정감사회의록에서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서 그때 발언하신 내용을 충실하게 다시 추가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하실 때 말씀 안 하신 것을 지금 신규로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니까 회의록을 확인한 다음에 회의록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여야 간사님께서 협의해 주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또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대로 하되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서 진성준 위원님, 김종태 위원님, 송영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문안 정리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 현안보고 순서입니다.

합참의장님과 국방부 간부들 입장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최근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반발하면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높은 수준의 핵실험 강행 의지를 반복해서 공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관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핵무기 보유 의도를 내외에 명백하게 한 것이며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확산의 억제, 핵확산금지조약으로의 복귀를 유도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현 상황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개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유사시에 우리 군의 군사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현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안보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긴급하게 현안보고를 상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국방 현안보고(북한 핵실험 관련)

(14시21분)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방 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국방부장관이 해외출장 중인 점을 감안해서 합동참모의장이 보고하도록 한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내용에는 일부 군사기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군사기밀 사항은 비공개 보고를 요청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견이 없으시면 합참의장의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군사기밀 사항에 대한 보고는 비공개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다시 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진성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하십시오.

○진성준 위원 먼저 오늘 국방부장관이 해외출장을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예고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4일 북한은 준전시태세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우리 한미 양국은 사흘 동안 한미연합 해상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북한이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반도의 군사적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출국을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를테면 위기상황에서 장군이 위수지역을 이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부가 입만 열면 안보 불감증을 이야기하고 국민의 안보태세 또 안보 경각심이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지적해 왔는데 어떻게 국방부장관이 이럴 수가 있는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충분한 해명이나 양해 이런 요구가 있었는지, 그래서 위원장께서는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셨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지난 일요일 날 국방부장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고, 국방부장관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신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북한 핵실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장관하고 통화했는데 그 끝에 사우디아라비아 협약서 체결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마는 만약 핵실험 상황이 실제 발생하면 중간에 바로 귀국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늘 회의가 잡힌 것은 본래 장관께서 돌아오시는 일정이—오늘이 수요일 아닙니까—금요일 새벽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국방위원회가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오늘 합참의장님한테 보고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대신했는데 그 사이에 사정 변경이 또 생겨 가지고 아마 무박 2일로 지금 4시 반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오늘 그것을 알았습니다.

국방부장관의 이런 처신에 관련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시고, 지금 장관께서 여기 안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이 출석하는 회의에서 추후에 해명을 요구할 게 있으면 요구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양해한 적은 없습니다.

진 위원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진성준 위원 (고개를 끄덕임)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 합참의장의 개략적인 설명을 듣고 비공개 보고를 받고 그러고 공개질

의로 전환하겠습니다.

합참의장, 먼저 공개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합참의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민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위원님 여러분!

오늘 북한의 핵실험 준비와 관련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핵실험 중지 촉구와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3차 핵실험 준비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에 이번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며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심각한 도전행위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핵실험 관련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준비 이외에도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한이 그러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응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은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도록 만반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임관빈 국방정책실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합참의장님, 비공개 보고는 몇 분이나 걸립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10분 이내에서 될 수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국방 현안 관련 군사기밀 사항 보고를 위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언론 관계자를 비롯해서 비밀 취급 인가가 없어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지금 퇴장해 주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공개회의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비공개회의개시)

(14시37분 비공개회의종료)

○委員長 劉承旼 회의를 공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야 간사님들 합의로 한 분당 7분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합참의 보고를 받아 봤는데요.

정확하게 우리 군이 북한의 핵 능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어떤 수준에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그동안에 추출한 플루토늄을 계산을 해 보고 그동안에 2차에 걸친 핵실험을 했던 사실, 이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지금 현재 약 한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를 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무기화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되었을 가능성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만 현재 그것에 대한 확인된 정보는 없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에 의한 핵 개발, 이것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미국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한 40㎏ 정도 생산을 했고 그동안의 1차, 2차 핵실험 당시에 플루토늄탄을 실험했다고 하면 한 10~12㎏ 정도는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서 그것을 탄두로 만들었을 경우에 한 3~4개 정도의 플루토늄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미 의회조사국이 평가하고 있어요.

국방부도 이에 동의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저희가 평가하고 있는 것은 1·2차 핵실험 이후에 플루토늄의 양이 40㎏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그런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조금 더 많네요.

한 6~8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무기화했다면 그러한 판단도 가능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핵실험 자체가 무기화 해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지 무기화되지 않은 것으로 실험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니, 그것을 전량 무기화를 했을지, 아직은 플루토늄으로 가지고 있을

지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진성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3차 핵실험에서는 어떤 실험, 아까 고농축 우라늄에 따른 핵탄두 폭파 실험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몇 가지의 가능성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루토늄탄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1·2차 정도를 했다라고 볼 때 뭔가 성능이 더 개선된 또 위력이 증강된 그런 플루토늄탄을 실험하고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다면 이번에 고농축 우라늄탄 핵실험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아까 정책실장 말씀과 같이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방안, 이것도 저희들은 가능한 방안 중의 하나로 추정을 하면서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그래서 플루토늄탄이 강화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른바 수소폭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를테면 증폭 핵분열 폭탄 실험, 그걸 의미하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 하면 핵융합 폭탄을 의미할 텐데 완전한 수준의 수소폭탄에 이르기 전 단계의, 위력이 증강된 그러한 탄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그게 부스티드 웨펀(boosted weapon)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험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예.

그러니까 우라늄탄과 플루토늄의 강화된 형태의 폭탄 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네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이렇게 핵실험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의 핵 대비태세에 대한 보고를 들어 보면 이를테면 여기 '군사대비태세의 하나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겠다' 또 '사거리 연장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사일에 대한 대책은 되어도 핵무기 자체에 대한 대책이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건 그렇습니다.

핵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탄도유도탄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비행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는 것 또 전체적인 한국형 대공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것은 일단 적들이 미사일을 한국을 향해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쐈을 때의 얘기고 그 이전에, 공격을 하기 전에 정밀타격을 하기 위한 소위 말하는 킬 체인(kill chain), 발사위치를 탐지해서 식별해서 결심해서 타격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거기서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저희 군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선제타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장관이 이런 말을 합니다.

1994년 북핵 위기 당시에는 북한의 핵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영변이라고 하는 곳,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군사적인 옵션이 가능했다, 정밀타격 하는 방안이 가능했지만 지금 이것이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모르고 더구나 지난 1월 달에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이동식 발사차량이 북한 전역에서 기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미사일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서 이를테면 킬 체인 시스템에 의한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사적 공격이 어렵다, 선택 가능한 옵션이 아니다라고 윌리엄 페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킬 체인 시스템을 구축하면 확실히 제압이 가능한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적이 핵을 공격하고자 할 경우에 그 징후가 발견됐을 때 자위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격일 것인데 제가 킬 체인의 첫 번째가 탐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탐지능력을 보강하는 그것도 포함을 하면……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지난번 북한의 열병식에서 나왔던 것처럼 KN-08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동식 발사차량이 등장했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이번 1월 달에 북한 전역에서 기동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이를테면 ICBM 정도를 쏘는 대형 발

사차량이고 적어도 이남을 사정권으로 하는, 대한민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로켓의 경우에, 미사일의 경우에는 그만큼 대형 미사일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작은 이동식 발사차량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이렇게 미사일을 싣고 다니는 차량들이 전국 각지를 돌아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사전에 탐지해서 격파가 가능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실제로 탐지해서 타격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한 타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적들에게는 대단한 억제수단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추가로 질문하지요.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찬 위원 의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북핵 관련해서 전 세계가, 전 국민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또 관련 국가는 긴밀하게, 아주 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약 2주 동안 그러한 모습인데 정작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국민의 의혹이나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또는 심지어는 우리 국방위에도 그러한 부분이 한번도 보고가 안 됐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없는 것인지, 대비를 너무 잘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참 우려스럽기도 하고 너무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물론 현재의 능력으로 가용한 전 전력을 또는 가용한 전 채널을 가동해서 잘하고 있다고는 보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러한 우려 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응이 늦고 무관심하다, 이렇게 사실은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실험을 하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24시간 밀착 감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핵실험을 하면 어떠한 강력한 응징을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인사 중에 드린 말씀은 핵실험 이외에도……

○김성찬 위원 아니, 핵실험 이외에는 논외로 하고 지금 오늘은 핵실험 관련해서 말씀하니까 주제를 좀 집중해서 합시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래서 어떠한 강력한 응징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아까 강력한 응징을 말씀드릴 때는 핵실험 준비 이외의 다른 형태의 도발 가능성을 보면서 그러한 도발을 감행한다면 강력히 응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었고 그다음에 과연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핵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인식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아주 직접적인 위협이고……

○김성찬 위원 의장님, 짧게짧게 단답형으로 합시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래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 이것을 통해서 유엔에서의 어떤 결의, 뭐 이러한 것들을……

○김성찬 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의장님, 지금 여기 보고서 4페이지도 핵실험 후의 대비방향이 전부 다 핵실험 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고 정말 핵실험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실제 정부도 그랬고, 우리 국방부장관님께서도 지난 2월 1일 날 전방에 가서 '도발 원점을 정밀타격하고 자동적으로 완전 분쇄하라'라고 하셨지요?

의장, 그 명령을 받았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렇다면 지금 핵실험을 도발로 보는 것이냐, 핵실험 말고 도발하는 부분은 당연히 응징을 하여야지요. 그 부분은 중언부언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냐, 지금 핵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자꾸 주제가, 국민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지금 핵실험을 도발로 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은 도발입니다. 핵실험은……

○김성찬 위원 잠깐, 도발이라고 했지요?

도발하면 강력하게 도발 원점 응징하도록 하셨지요? 장관님이 지시했잖아요?

자동적으로 분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동적으로 분쇄하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거기서 장관님께서 말씀

하신 도발 원점에 대한 것은 핵실험의 원점을 의미한 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아니, 군사적 조치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상적이면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대신 핵실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의 핵 능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김성찬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방부, 합참이 준비하는 게 너무나 수상쩍고 너무나 대비가 부실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실험을 통해서 핵 능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군과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 갖는 확장억제, 이 확장억제 능력을 더 발전시키고 뭔가 지금 상황에 맞는 맞춤형 억제 전략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런 맞춤형 억제 전략을 현재 수립 중에 있고 현재 한미 간에 이미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도 SCM 때 한미 확장억제정책 해서 뭐 EDPC를 하시겠다,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하시겠다, 핵우산을 검증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미국에 의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장 큰 위협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인데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지금 의장께서 하고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전작권 환수를 하겠다는 이런 모순된 말씀을 지금 스스로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그 맞춤형 전략이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3개월이 지났잖아요. 올해 그걸 하신다고 했는데 맞춤형 전략이 도대체 뭔지, 언론상에 너무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나와 가지고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국민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는 제 자신도 혼돈스럽다는 겁니다.

정말로 북한 핵실험을 도발로 보는 건지 핵실험에 대한 별도의 조치를 하시는 건지, 핵실험을 제외한 도발은 당연히, 그것은 말씀을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셔 가지고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수소폭탄 실험이다, 고농축이다, 이런 부분에서 참 판단이 보안 때문에 말씀 못 할 것도 있고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것도 있고 사실은 또 다른 언론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다시 인용하여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정말로 현재 북한의 핵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고농축 우라늄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진성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8개를 가지고 있는 건지, 지금 의장님의 정보자산으로 그걸 판단하신 건지, 언론에 나오니까 하시는 건지, 저도 사실 참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자료가 확실치 않습니다.

도대체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모르시면 차라리 모르신다고 하시고 말씀을 못 한다면 말씀을 못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 1·2차 핵실험을 거치면서 그들의 핵 능력을 상당 부분 축적을 해 왔다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소위 플루토늄과 관련해서는 약 40㎏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를 하였다, 이것이 실제로 무기화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한 확실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것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성찬 위원 그게 모르는 거지 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진성준 위원님, 김성찬 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북한 핵실험이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아시는 것은 분명하게 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핵실험의 경우에 군사적 대응을 안 한다고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것도 좀 분명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확장억제를 소위 맞춤형으로 전략을 구사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부 군사적인 대응들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못 하시나 보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 내용을 지금 구

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억제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그들의 동맹과 그들의 우방에 일반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대한민국과의 확장억제는 한국적 상황에 맞는 그러한 억제 전략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국이 얘기하는 그냥 확장억제보다는 매우 진전되고 발전되어 가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김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위원 예, 명절이 다가오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사실은 국방이나 이런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뭐 하나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요즘 대륙간 탄도미사일, 노동 1호 이런 것들을 계속 발사를 하다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계속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하고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탄도미사일이나 아니면 노동 1호 이런 것처럼 어딘가로, 그게 한반도든 아니면 재외의 공관이든지 간에 미사일처럼 발사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위 지금 말씀하신 갱도나 이런 데 안에서 자체적인 폭발실험 정도로 그치는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는 지하 핵실험을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면 이게 한반도든지 여기로 날아오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닌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 그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광진 위원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인데, 물론 선군정치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재원들을 군으로 다 쏟아 부었다고는 하는데 북한이 NPT 탈퇴를 한 게 1993년 3월 12일인데, 이렇게 20년 가까이 지났는데 이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소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무기를 제대로 실험을 하고 이렇게 하기에는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십수억 불 이상의 그러한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 위원 2012년 9월 2일자 AP통신에 보면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등이 이란에서 만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고 이란이 완벽한 핵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실제 핵무기를 직접은 만들지 않는 일본의 사례를 모방해서 핵개발의 꿈을 키워 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고.

2012년 12월 19일자 일본 NHK 기사에 보면, 앞에는 잘라버리고 뒤에만 보자면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전 사전에 북한이 이란에게 발사 사실을 설명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미사일 개발이나 핵개발, 탄도미사일 개발 등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지금 북한이 이란과 공조를 끊임없이 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외신 기사에 보면 이번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북한이 이란으로부터 52억 불을 받았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혹시 이 금액에 대한 신빙성을 확인해 보셨거나 아니면 조사가 따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란으로부터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받았을 거라고 조사가 되셨는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광진 위원 예.

또 외신을 그냥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2011년 2월 9일자 일본 산케이신문 기사인데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란이 북한에 제공한 핵개발 자금은 약 20억 달러에 달하며 2008년 3월, 2009년 6월, 2010년 4월 등 총 3차에 걸쳐서 이란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대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이 전에, 그러니까 2011년도에 했던 기사에 대해서도 내용은 모르시나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번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광진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예상하시는 것 중에 경제난이 저렇게 심각하다는데 어떤 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항상 있어 왔고 또 특정해서는 예를 들면 소위 참여정부나 민주정부 시절의 퍼주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용어가 적당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미사일 개발을 했다 혹은 핵을 개발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 세

계적인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때그때 거의 이란이나 제3국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사들이 끊임없이 생산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 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다고 한다면 실제로 북한이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핵실험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실제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무기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제3국에게 자기의 실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두 존경하는 위원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과연 북한의 지금 이 상황들을 제대로 잘 인지하고 있느냐, 핵실험 정보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안타까운 것 중의 하나는 엊그제 것인데 얼마 전에, 2013년 2월 4일 국방부에서 북 핵실험장 개념도라고 발표를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조사해서 찾아봤더니 핵실험장 개념도라고 캡처해 가지고 사진을 공개해 주셨던 상황이 북한이 2009년 5월 25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실시한 2차 핵실험을 선전하기 위해서 2010년 9월에 방영한 기록영화의 내용을 캡처해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국방부의 정보획득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선전영화의 내용을 캡처해 가지고 하는 정도의 수준인 것인가, 아니면 제가 잘못 자료를 파악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후에 조사하셔 가지고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군의 정보능력이 북한의 선전영화를 캡처해서 보는 그 정도 수준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군에서는 2009년도에도 이미 북한의 갱도가, 핵실험을 위한 갱도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였던 바가 있고, 그런데 그 판단의 결과가 2010년도에 북한이 선전방송을 했을 때의 그 내용과 매우 유사하게 일치하는,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그런 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국방부가 발표를 한 것은 대변인실에서 우리 국방부 출입기자단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참고로 제공한 그러한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비공개로 업무보고 한다 하시기에 상당하게 그 내용이 깊이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들었으나 그 기대는 좀 실망을 했습니다. 실망한 것은 여기 계시는 기자 어느 분한테도 이 보고서 쓰라면 이것보다 더 충실히 쓸 수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내용보다 현재 보고된 내용은 더 좀 상세하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합참의장께서 지금 북한 핵과 관련해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답답한 것이 정보력이라고 보는데 솔직하게 보안에 제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참의장님 하시면서 이런 정보수집의 한계 내지는 더 갖춰야 될 것이 지금 생각이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과 관련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의 정보능력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징후를 식별하고 하는 능력이 현재보다 많이 더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니까 장비 몇 개는 늘었지만 우리가 자랑하는 인원 정보수집능력이라든지 전파에 의한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군은 갈 길이 먼데, 제가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로 합참의장도 답답하시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합참의장 끝나기 전에 정보수집능력 강화를 위해서 한번 여러 가지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커다란 장비 몇 개 갖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석능력이라든지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보완해 주시면 다음 국회에서 이 정도의 보고서보다는 더 충실한 보고서가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핵개발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해외 각국과의 생각은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국민들은 당장 우리한테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고 그다음에 다른 나라는 이것이 일본, 한국 비핵화가 핵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우리도 차제에 북한이 핵

실험한다 할 때에 얻을 것은 얻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 있겠는데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하겠다, 원천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고 우리도 핵을 갖겠다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한미공조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전략을 정부와 국방부, 합참, 누가 세워야 된다고 봅니까, 주 책임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모두에게 책임이 있으면 모두가 다 안 하거든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수준이 다른 것이지요. 통수기구는 통수기구대로의 그 수준에서 할 일이 있고 국방부는 국방부 수준에서 할 일이 있고 저희 군은 또 군 수준에서 할 일이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런 원론적인 답변보다는, 제가 좀 듣고 싶었던 것은 이런 문제 가지고 정부 어디에서 뭘 했고 국방부에서도 뭘 하고 있고 합참에서는 뭘 하고 이 정도로 나오면 정말로 이것이 정부와 국방부, 합참에서 각각 대응할 전략이 있고 그것을 묶어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대통령 중심으로 회의도 했겠지만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차제에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또 북한에게는 간 서늘하게 미국한테 우리가 '너희 이러이러한 능력을 나하고 같이 공조 안 해 주면 나는 개발하겠다' 하는 이야기도 선언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검토하겠다, 또 국제적 문제 되면 여러 가지 맞춰 가지고 단계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함으로 해서 북한을 손들게 하는 그런 전략을 합참과 국방부와 정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언론에게 국민에게 일부를 알려 가면서 진행해야만이 북한의 핵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지금은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우리가 우리 국민의 생존권…… 현시점에서 지나고 나면 다음 몇 년 후 가서 그때 이 정도를 조치해 줬었으면 미국한테 이 정도는 얻었을 것이다 또 중국한테 이 정도는 양보를 얻었을 것이다 하는 후회를 하지 않는 현시점에서의 대응, 대안들이 저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해 가지고, 이것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중단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 정부와 차기 인수위원회에서 발 빠르게 협의를 해서 공동 대응을 함으로 해서 합참의장께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풍부한 경험을 쏟아 부어서 최소한 군사적인 대비만큼은 후회가 없도록 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로서는 확장억제를 통한 적의 핵위협 억제, 이것이 기본적인 저희들의 방침입니다.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서도 국방부가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미 측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입장에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 또 그것을 포함한 킬 체인의 완성, 그다음에 우리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러한 것들을 가짐으로써 그것 자체가 북한에게도 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태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북한을 상대로 해서 크게 할 수 있는……

북한은 벌써 비핵화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른 어떤 대응책을 정부 차원에서 꼭 우방국과 상의하에 또 한미 공조하에 내놔야 되고, 국방부에서는 한미 협조하에 북한의 원점을, 현재 우리 혼자는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 측과 합의하에 공동으로 필요시에는 원점도 타격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정도는 발표해야만 북한도 좀 제한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장비에 대한, 핵무기가 발사됐을 때 우리 군사대비 차원에서 중성자탄 차폐장치가 제가 전차 일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핵 중성자탄 차폐장치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김종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형전차에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에 그 원점지역에서 활동하는 기동장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장치를 해서 대비해야만

초기에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우리 군사작전은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합참 차원에서 기동장비에 대해서 일부 차폐장치는 보강하는 것이 초기에 핵전에서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검토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관련 사실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합참의장님,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자꾸 끼어들면 안 되는데요.

확장 억제라고 자꾸 말씀하시면 국민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현역 군인 중에 최고 위치에 계신 분인데 지금 북한이 12월 달에 미사일 성공했고, 지금 이번에 핵무기 소형화하는데 만약 성공을 하고 그렇게 되면 핵무기를 갖는 것인데 그런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지고 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대책이 뭐냐 이러니까 자꾸 확장 억제력이라고 몇 번, 한미 동맹하에 확장 억제력…… 우리 국민들이 알아듣게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맞춤형 억제 전략은 그 대상을 북한의 핵 위협으로 대상을 해서 거기에는 범위 그리고 어떤 사용할 수단 이러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될 것입니다, 한미 간에.

그래서 적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억제……

○委員長 劉承旼 결국 선제타격 이야기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선제타격도 될 수 있고, 사용 후의 어떤 응징에 대한 두려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만성적인 무신경 이런 상태에 빠진 이유가 우리 군에도 있습니다, 원인이.

왜냐하면 제가 2008년부터 국방위원회 했는데 플루토늄 40㎏, 한 6~7개 핵탄두 개발 가능이라는 것은 합참의장님 청문회하실 때도 그러셨고, 그전에 합참의장 청문회할 때도 그랬고, 2006년부터 우리 정부가 계속 되풀이되는 이야기예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는 모른다, 불확실하다 이러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무감각해지고 무신경해지고, 북한의 핵 개발이 굉장히 수준이 진행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자꾸 답변을 2006년부터 지금까지 7년 동안 똑같이 플루토늄 40㎏ 이 이야기만 계속하면,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핵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위기의식이 없다, 안보의식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군이 그렇게 조장한 겁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안 끼어들려고 그러는데 답변하실 때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오늘 할지 내일 할지 모르는 그러한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한반도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우디에 국방협력협정 맺으러 간 것을 대단히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우디와의 협정도 필요하지만 매사가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시기를 택해서 처신을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한반도 상황이 위중한데 그것이 그렇게 급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입학시험 날 과외 공부하러 간 것과 한 가지예요. 입학시험 날은 입학시험을 보고 평소에 그런 과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때를 모르고 장관이 있는 것이 걱정이 돼서 과연 이 정권이 안보의식이 있는 정권이냐 이렇게 개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핵물질 관련해서 지크프리드 해커 박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모두 사용해서 동시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했고, 4~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24~48㎏ 정도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도 대략 그런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1, 2차 실험 이후에 남아 있는 플루토늄은 대략 한 40㎏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추정한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지크프리드 박사와 비슷한 그런 입장입니까? 추정 근거가?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거의 같은 논리인데 그 동안에 핵연료봉을 재처리한 실적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북한이 지난 1월 24일에 높은 수준 핵실험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최근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형 핵무기를 만들려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현황보고 하는 데는 소형 핵무기화와의 가능성에 대해서 별 설명이 없는 것 같았는데, 미사일의 탑재가 가능할 정도로 소형화·경량화하는 일이 지금 북한의 기술 수준이 그 정도에 도달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통상의 경우 핵무기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정도의 소형화를 달성하는데 핵무기 최초 실험 이후에 한 4, 5년 정도가 걸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합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 보면.

그렇게 볼 때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고, 물론 그것은 실패 또는 아주 부분적인 성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만 했고, 그다음 2009년도에 핵실험을 했고 그러고서 지금이 2013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그들의 소형화 수준이 상당 부분 진전이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우리 군이 취득하는 정보가 그러니까 그냥 몇 년 지났으니까 그 기간이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 정도에 머무는 것입니까? 또는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나아간 무슨 정보가 있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한미 양국 정보당국의 판단입니다.

○이석현 위원 미국 측 정보를 다 포함해서 볼 때 그런 것 같다는 뜻이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리고 최근에 한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 고위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핵무기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선제타격도 고려 대상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핵무기 사용이 구체화될 경우에 대응 방안으로 실제로 선제타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 제가 부임 전에 청문회에서도 그 말씀을 한번 올린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적이 실제로 핵을 무기화해서 그것을 사용할 경우에, 사용하려고 아주 임박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선제타격도 저희의 방책 중의 하나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핵무기가 발사가 됐을 때 그것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충분히 갖추고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의 탄도탄 방어 능력이라는 것이 현재 일부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성능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주 군사 선진국의 그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제한적으로는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그런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PAC-3 시스템으로 조금 더 선진화시키는 것 그리고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좀 더 조기에 구축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석현 위원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중동전에서 예상했던 위력을 발휘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일부 요격이 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안 되기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그것을 개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우리 쪽에서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보다 보다 더 향상된 시스템으로 이것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게 한국형 미사일 개발 계획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의미……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그러한 PAC-2를 PAC-3로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여러 가지 대공미사일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핵실험을 북한이 하고 나면 그 핵물질을, 핵실험 직후에 우리가 핵물질을 탐지해서 그 규모나 여러 가지 위력이나 이런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위력을 판단하는 것은 어떤 진동이 생겼을 때 그 진동의 강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알게 되겠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무기냐 하는 그러한 것은 실험 이후에 나오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논이나 크립톤이나 그런 것이 있는데……

○이석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준비가 어떻게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준비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또 그런 노력도 할 것입니다만 만일에 지하 핵실험이 밀폐가 완벽하게 되어서 그런 관련된 어떤 가스나 그런 물질이 방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게 제한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 경우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 능력만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못 합니까? 미군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 공유가 되어야만 알게 됩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과거에 지진 났을 때 우리가 늦게 알았던 사례가 있어요. 우리 정부가 중국이 안 뒤에 알았던가 그런 사례가 언뜻 떠올라 가지고.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을 하는 것 자체, 핵실험이 이루어진 그 자체는 미군 당국이나 우리나 같은 시간대, 어쩌면 우리가 더 먼저 확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서 많은 센서들을 지금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북한의 종심지역에서 어떤 진동이 생겼을 때 그것이 대략 지금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5분 정도 지나면 그 진동을 우리가 이쪽에서 감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자연지진이냐 인공지진이냐 이러한 것들을 판단한 이후에 이것은 인공지진이다, 따라서 핵실험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이 대략 한 30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석현 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근 위원 우리 의장님, 저녁에 잠 잘 못 주무시지요? 잘 주무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잘 자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아주 다행입니다.

이제까지 토의하는 것, 다 내용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없다, 북한은 핵개발을 계속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전반적인 예측이고, 그러면 북한이 핵개발한 다음에는 소형화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위협 수단으로 발전시키겠다,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것이 소형화되어 가지고 우리 머리 위에 날아와서 터지는 것, 지금 아마 핵심은, 국민들의 불안은 저들이 무기화를 해서 서울이든 부산에 와서 머리 위에서 터지는 상황이 발생할까 봐 제일 우려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핵무기를 막지 못하고 지금 정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 열어 가지고, 3차 핵실험 한 다음에 다음 조치 아무리 난리쳐도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큰 성과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부 억제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다음에 안심을 주는 것은 '만들었더라도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게 아마 국방부 쪽에서 나와야 될 답으로 보여집니다. '몇 개를 만들었든 절대로 국민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게 앞으로 국방부가 준비해 나가야 될 방향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수단이라는 것은 뻔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이동식 발사대를 100% 감시할 것인가, 그렇지요? 어디 가서 쏘든 간에 그것을 어떻게 100% 찾아낼 것이냐, 두 번째는 그것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정확한 타격수단을 우리가 갖출 것이냐, 세 번째는 그것 다 실패해 가지고 날아오면 중간에서 100% 격추시킬 수 있는가, 아마 이게 나가야 될 기본적인 방향 아니겠는가……

그러면 의장님, 북한이 만약에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소형화 성공하는 데 얼마 정도 걸릴 것으로 합참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소형화라고 하는 것이 대략 무기의 무게가 한 1000㎏ 이하 그리고 또 무기의 직경이

한 90㎝ 이하, 결국에 그런 기준들이 보면, 이것을 미사일에 탑재해서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일 경우에 그런 기준으로 통상은 판단을 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만큼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근 위원 그러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이것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내년에라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북한의 정보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소형화가 완료됐을 때에 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래서 그 부분이, 아까 확장억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아까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장억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미공조를 통해서, 그러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통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불안합니다. 자, 확장억제, 결과적으로 MD 체제로 개념이 가지요. 요격하는데, 미국이 확장억제를 해 주는데 과연 우리가 못 갖춘 100% 감시능력을 100% 해 줄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야, 저것 움직이니까 쏴야 되겠다' 하면 미국이 평상시에 우리가 쏘겠다는 것을 오케이 해 주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재 우리 대공요격망 대단히 성근 것 뻔히 알잖아요. 그러면 이것 다 막을 수 없다고 하면 미국에서 요격선을 대 주는가. 이것이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불안해집니다. 확장억제, 믿을 수 없지요, 맞춤형 아니라 그 할아버지라도. 이렇게 되면 말장난밖에 되는 것 아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데 이것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완전한 의미에서의 감시는, 어떤 감시수단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완벽한 의미에서의 감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우리가 이것을 타격하고자 할 경우에 과연 미국이 동의해 주겠는가 하는 문제는 만일에 적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서 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율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미국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송영근 위원 그렇다면 거기까지 쏠 수 있는 무기 가지고 있어요? 800㎞ 나가는 미사일 아직 개발 안 됐잖아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800㎞ 나가는 미사일을 현재 개발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저희도 일부 지대지미사일과 공대지미사일과 등등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말씀대로 보다 더 능력이 강화된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거리 미사일의 개발을 좀 더 가속화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여기까지 했으면 내가 무슨 말을 한지 알겠고, 의장님 답변을 듣고도 국민들 입장으로 돌아가면 아직도 불안하실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과의 확장억제협상을 보다 진지하고 치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궁극적인 답은 우리의 KMD가 북한의 무기가 소형화되기 이전에 먼저 준비되어 있는 것이 정답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관두신 다음의 일이지만 우리 국가와 후손들의 운명이 달린 문제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제기나 그러한 것들은 합참의 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을 잘 인지하고 있고 인식하고 있고 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우리 국회에서 잘못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이시지요? 국회의원들이 예산지원 안 해 주는 것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마 잘 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김재윤 위원 의장님, 우리 군이 판단할 때 북한에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서먼 장군과 만나서 논의를 하면서도 그런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둘 사이에 나눈 대화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임박했다고 하는 징후는 없으나 상시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이 현재의 판단입니다.

○김재윤 위원 우리 군이 볼 때는 임박한지 안 한지는 알 수가 없으나 상시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징후는 있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인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런 능력과 태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히 지금 적들이 핵실험을 한다면 그것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또 어떤 정책적인 정치적인 결심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동시에 핵실험 시기를 가급적 기만하고자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 보면 임박한 징후가 없이도 핵실험이 가능할 것으로도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임박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항상 가능한 상황으로 보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웃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항상 가능한 상황인지, 임박한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우리 군이 볼 때는, 지금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우리 국회가 알고 싶은 것은 북한의 현재 핵실험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핵실험을 한다면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할 것인지라고 예측하는 것은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군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풍계리 일대에서 핵실험 준비가 다 되어서 언제라도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러면 과연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몇 월 며칠 몇 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미국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는 말도 하였고, 저는 그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들의 체제 생존을 위해서 그런 내부적인 목적을 가지고도 핵실험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것은 아마도 2월 중에는 핵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 2월이 지나서 그 이후에 할 수도 있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군이 판단할 때는 2월 중에는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고개를 끄덕임)

○김재윤 위원 그러면 2월 중이라면, 2월 중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지금 상황은 나름대로 군으로 볼 때는 긴급하게 대처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국방부 벙커가 비었다' 이런 언론의 지적이 있는데요. 이럴 때 '국방부 벙커가 비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만큼 국방부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으면 거기에 걸맞게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국방부 벙커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의 말씀인지 제가 명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지금 합참은 북핵과 관련된 태스크포스를 상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저는 안보상황이 위기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한미관계도 긴밀한 대응과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또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런데 북한이 지금 1월 23일 날 외무성, 1월 24일 날 국방위, 1월 25일 조평통 성명발표에 이어서 2월 3일에는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주재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께서도 2월 중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국방부와 합참의 구체적인 대응책은 뭡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우선은 한미 간에 현재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아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미 측에서 수집이 돼서 저희들한테 제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저희 정보를 미 측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정보당국자들 간에 논의를 해서 과연 지금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차례씩 그러한 공조 논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일에 적들의 도발이 점점 더 진행됨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현재 아까 말씀대로 북핵 관련 TF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일에 적들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아마 핵실험과 더불어서 또 다른 형태의 도발들도 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경계태세 그리고 우리의 대응태세 이러한 것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이 말하는 높은 수준의 새롭게 발전된 방법 그리고 현대식 핵실험은 뭘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핵실험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군이 판단하고 있는 높은 수준의 새롭게 발전된 방법, 현대식 핵실험은 무엇이라고 보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에는 이번에 3차 핵실험을 적들이 한다면 아마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플루토늄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형태의 탄, 위력이 더 증강된 형태의 탄을 실험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고농축우라늄탄을 만들어서 재료가 다른 탄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이 합해져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가능성도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합참의장께서 생각하시기에는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김재윤 위원 그리고 두 차례의 플루토늄 핵실험으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더 강력한 폭발력을 보일 수 있는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복합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플루토늄 핵폭탄과 동시에 우라늄 핵폭탄 실험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북한의 핵능력이 그렇게 증가되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매우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러면 만일 지금 합참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유형의 핵실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떤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한 핵실험이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무기화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위협 내지는 공갈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러한 핵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형태의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를 지금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재윤 위원 북한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군이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요. 또 우리 정부는 군의 적절한 대응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적으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손인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춘 위원 합참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장님, 지난달 31일 헤이글 미국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실질적인 핵 파워를 갖고 있으며 행동을 예측하기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셨고, 북한은 위험수준을 넘어선 상태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북핵의 실험이 대한민국 국방안보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들이 만약에 이번에 핵실험을 해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 성공한다면 그것은 아주 우리나라의 안보에 매우 심각한 직접적 위협입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존경하는 손 위원님께서 실질적인 핵보유와 관련된 그 문제는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게 그러한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손인춘 위원 제가 지난해 10월 달 합참 국감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책을 물었을 때 의장님께서 북한이 핵을 사용할 임박 징후가 있다면 이를 선제타격하는 방안까지 같이 강구하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의 핵도발에 대한 선제타격 의지가 지금도

확고하신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손인춘 위원 그 확고하신 게 국민이 정확히 믿어도 되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고 또 우리 국군 전 장병들은 북한이 어떤 형태의 그런 도발을 하고 할 경우에는 강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만일에 적이 핵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임박한 징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선제타격할 것입니다.

○손인춘 위원 국민이 제일 궁금한 부분인 것 같아서요 자꾸 여쭤봅니다.

일부에서는 이스라엘이 2007년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라크와 시리아의 핵시설을 제거한 것을 예로 들어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서 정밀 순항유도탄으로 선제타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현재는, 핵실험장에 대한 지금 선제타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손인춘 위원 예.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는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정부는 북한의 2006년 1차 핵실험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실패했고, 2009년도 2차 핵실험도 사실은 저지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실패했습니다. 3차 핵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완성을 위한 마지막 핵실험이라고 우리가 다 보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막을 무슨 가능성 이런 것은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나요? 아니면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부분은 지금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중국까지도 같이 동의하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핵실험을 막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제타격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이 바뀌고 위협의 형태가 바뀌면 그것은 항상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인춘 위원 예, 선제타격은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당사자는 사실 미국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지만 우리나라인데 6자회담이나 미국과 중국과의 협의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 우리 국방부나 합참이 좀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위협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이는 의지라고 할까요, 그런 의지가 조금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다른 무슨 방안이 있으신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북한의 핵개발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실험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손인춘 위원 합참의장님께서 국민들에게 핵실험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추상적인 해결책 이외에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책이나 해결방안을, 의지를 지금 보여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국민들은 항상 불안에 떠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한 의지를 좀 표명해 주시고요.

아까도 정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합참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및 도발위협을 어떤 경로로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한미 정보당국은 많은 감시자산을 투입해서 가능한 핵실험 장소 일대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은 그러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감시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국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방위에서 군사위성이 중요하다고, 고고도무인정찰기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속적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우리나라 독자적인 정보력 확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고도정찰 무인항공기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금 소요제기를 해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역시 거기에서 항상 좀 필요한 것은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손인춘 위원 이번에 나로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독자적인 정보력 확보를 위해 군사위성 개발을 적극적으로 검토도 해 주시고, 또 이런 정보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에게도 계속 설득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좀…… 꼭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의지력도 약한 것 아니었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한 의지력으로 표현해 주셨으면 하고, 우리 또 안보에 더 확고부동한 이번 핵의 도발에 대해서 타격 의지를 확실하게 좀 덧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임관빈 실장이 보고를 할 적에 풍계리 핵실험장 2번 갱도와 3번 갱도 모두 '상시 핵실험 가능 상태'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요. 이런 상황은 동시다발 혹은 연쇄적인 핵실험의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요?

(유승민 위원장, 안규백 간사와 사회교대)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두 갱도를 모두 다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렇다면 파키스탄과 인도가 아주 빠른 시일에 연쇄적이고 즉각적인 실험을 통해서 핵탄두 장착 미사일을 개발하게 됐는데, 북한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게 나아가지 않나 하는 우려는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저희들은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억제대책 그리고 또 필요시에 선제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리고 또 선제타격을 못 했을 경우의 우리의 미사일 방공체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이 북한의 핵 문제는 말이지요. 1990년대 초 제가 그 당시 유엔본부 출입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처음 국제 문제화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국제사회 등이 북한에 의해서 끌려온 결과입니다. 결국은 대화에 의한 외교적 해결 수단으로는 안 됐다,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좀 자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빌리지 않더라도 북한의 핵 위협을 말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개발해야 된다, 이를테면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내서 국제적으로 좀 공조해서 말이지요.

아까도 의장께서는 '핵무기 사용 징후가 농후할 때는 선제타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핵실험장에 대한 타격은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러나 그 상황이 바뀌면 그것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김형태 위원 정말 한반도에서의 핵은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용 징후가 있으면 당연히 선제타격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과연 우리 국군의 정보 습득능력 가지고, 농후한 사용 징후가 있다, 그것을 어떻게 식별하겠습니까?

지금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징후를 보고 지금 플루토늄이냐 안 그러면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실험이냐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또 성질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 과연 '사용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말 애매모호한데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사용 가능성이 있다, 농후하다는 것을 판단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이제 적들이 핵을 사용하는 시기가 지금처럼 정전 시에 사용을 하고자 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 전시에 사용을 하고자 할 것인지 등 그 시기에 따라서도 아마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수단들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한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가용한 수단, 물론 그것은 우리 한국군만의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정보 능력까지를 같이 포함해서 탐지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사용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면 사용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이 주장하고 있듯이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일본을 상대로 해서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이든 관계없이 사용 징후가 있다고 그러면 선제타격한다, 이런 방침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잘 봐서 아주 그것은 중대한 결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작년 10월에 있었던 SCM에서 '한미 국방부장관이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 임관빈 실장, 맞습니까, 그때 출석했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예, 맞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래서 맞춤형 전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면 지금 임관빈 실장이 실제로 그때 거기를 다녀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임 실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예, 대답 좀 해 주십시오.

한미 국방부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전략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맞춤형 억제 전략이란, 미국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동맹국에 제공해 주는 핵 위협에 대한 억제 능력을 한국 한반도 상황에 맞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위협에 딱 맞는 그러한 우리의 억제 전략이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동으로 논의해서 개발하자는 것이 맞춤형 억제 전략입니다.

(안규백 간사, 유승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태 위원 그러면 아직도 맞춤형 전략이 확정된, 픽스된 것은 없구먼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논의해서 금년도 10월에 있을 SCM에 보고하기로, 실무적인 논의를 해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김형태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말이지요, 굉장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끌려오게 됐는가 하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 같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선제타격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 간에 북한의 핵 개발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개발해서 사용해서는 더더욱 안 될 것입니다. 어떻든 우리 정승조 합참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군이 여기에 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서 국민들이 불안해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잘 알겠습니다.

○김형태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준 위원 합잠의장님, 군복을 계속 입고 계시는 거지요, 요즘? 얼마나 입고 계셨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아마 전투복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유기준 위원 예, 전투복.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전투복을 입고 제가 근무할 때도 있고 또 근무복을 입고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해서 전투복을 입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예하부대를 방문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주로 전투복을 입고, 합참 내에서 집무를 할 때는 근무복을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기준 위원 장관님 귀국하셨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오후에 귀국하시도록 되어 있고, 지금 16시 30분이니까 한 30분 후쯤 귀국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언론을 보니까 벙커가 비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좀 불안감이 더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언어를 사용할 때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의장님께서 '북한의 핵실험이 상시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지금 의장님 사진이 뜬 그런 기사를 보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 출석한 합참의장'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임박이라는 말은 예고된 때가 가까이 올 때를 우리가 임박이라고 표현을 쓰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예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임박이라는 말이 오히려 적절한 것 같거든요. 상시 가능하다라는 말은 북한이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까 그것도 역

시 임박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여야지, 표현의 차이가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임박'과 '상시 가능'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박한 징후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러나 상시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게 임박해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 관련 TF를 지금 상설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기준 위원 심리적 압박을 받는 정도가 상시 가능보다는 임박이 좀 더 많으니까 그만큼 좀 노력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준비도 같이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보면 위장막도 지금 설치되어 있고 물자 출입 정도가 굉장히 빈번하고 또 그 안에 굴로 들어가서 차량이 나오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임박해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리고 예상보다 지금은 늦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들이 오히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동해에 한국과 미국이 합동해상훈련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북한도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압박, 또 최근에 유엔 결의안 2087호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핵실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이렇게 국제사회가 이미 천명을 한 이런 것들이 합해져 가지고 북한이 그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저울질을 하면서 자신들도 이런 3차 핵실험이 가지고 오게 될 파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통상 같으면 아마 저는 벌써 실시했을 것으로 봅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북한이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체제 유지와 관련된 내부적인 필요 그것과, 그다음에 두 번째로 대한민국 내지는 국제사회에 던지는 그들의 메시지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하면서 시기를 저울질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봐서 북한의 지도부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심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기준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스폰서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태도가 문제인데, 중국이 이번에 이전과는 좀 다르게 미국과 안보리 결의 문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전에 없었던 '중대한 조치' 이런 말도 들어가 있고 합의를 하는 데 이전과 같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다든지 서로 양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든지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북한도 국제사회에 미치는 반향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과 일본이 낸 성명이라든지 중국과 러시아가 낸 성명을 보면 온도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낸 성명을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겠다는 그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같은 '대(對)'자를 씁니다마는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뉘앙스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전보다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중국과의 관계도, 우리 국방위에서 그만큼 신경 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좀 신경 쓰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위원들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무엇이냐,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이냐 이것 가지고, 아니면 두 개 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재 추출된 플루토늄의 양은 아마 많이 사용을 해서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석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라늄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재처리를 통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 그다음에 1·2차에 걸친 실험, 그것을 하고 나서 지금 남아 있는 플루토늄이 한 40㎏ 정도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농축 장비를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략 1년에 한 40㎏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플루토늄탄의 실험 또 고농축 우라늄탄의 실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유기준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게 되면 이게 3차 핵실험이 되는데 1차, 2차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실험, 테스트 정도로 보이는데 이번의 경우

에는 실험이 아니고 확인의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되거든요.

1분만 더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유기준 위원 그게 이제 소량화·경량화를 시키면서 말 그대로 정말 핵 보유 국가로서 지위를 확인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컨펌(confirm)의 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것은 종래의 핵실험과는 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좀……

저는 아까 의장님께서 어느 정도 의지를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실험 장소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어떤 조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도 '어떤 상황이 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좀 유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유기준 위원 그러면 그런 실험 자체도 어떻게 보면 주변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도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핵실험 장소를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뒤에 말씀하신 그런 쪽에 방점을 두면서 말씀하셔야만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처음에 말씀드린 게 제 생각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다음에 바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기준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북한 핵과 관련해서 북한도 소수만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군도 이 정보를 어디까지 우리가 알고 있느냐가 상당히 관건인 것 같아요, 오늘 회의 내내 제가 느끼는 감인데. 그래서 우리 의장께서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 능력을 평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핵은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가 있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다, 그렇다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비핵화 지역이 아님을 선포를 하고 근본적인 군사대비태세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의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 우리 정부의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북한이 지난번에 '비핵화가 이미 끝났다'라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들의 발언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비핵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북한 핵실험의 긴급전력으로 탄도탄 요격을 위해서 저고도 요격체계인 PAC-3와 그다음에 중층, 중고도 ARROW-2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실험 이후에 이러한 무기체계의 긴급 소요 혹은 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층 방어 위주의 타격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소요를 제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오늘 보고 3페이지를 보니까요,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에 계측장비를 반입을 하고 갱도를 다시 되메우기를 해야 됩니다. 현재 북한의 이러한 작업이 언제, 며칠날 정도 완료가 됐고, 이 갱도가 남쪽입니까, 서쪽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서쪽 갱도와 남쪽 갱도 공히 그러한 절차들은 다 끝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일부 언론에서는 이게 통상적인 공법이 아니고 되메우기 이후에 장비 반입을 위해서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는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정확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안규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통상적인 공법이 아니고 되메우기 이후에 장비 반입을 위해서 임시 통로를 만들었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몇 가지의 절차들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확히 뭔지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러한 무슨 이동을 위한 그런 것들이 이미 다 끝나서 지도부의 정치적 결심이 있으면 실험이 가능한 그

런 상태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상정보 수집이 필수적인데요, 미 측으로부터 북 핵과 관련해서 영상정보를 받는 데 좀 제한된 사안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당선자께서도 이것을 인지하셨는지 군사 전용 위성 사용을 위해서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공약으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좀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이것이 지금 영상정보냐, 무엇이냐 하는 그런 어떤 정보 수집 방법이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한미군 간에는 매우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말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를테면 상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 결과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어느 일방이 그냥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취합해서 공동으로 내리는 결론이라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에는 아주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의장과 임관빈 장군께서도 말씀했다시피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서 아주 애매모호하고, 심지어 4성 장군 출신까지도 이 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게 의장과 장관 몇 분만 알고 계시는지, 우리 국방위원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맞춤형 전략에 대해서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이 국방위원한테 물어 보면 이게 내용의 미닝(meaning)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어떤 액션플랜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이 나왔는데 좀 시원하게 답변 못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부분이 실무 차원에서 과연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게 금년 가을에 SCM 때 양국 장관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우리가 북한 핵시설을 파괴하는 수단이, 무기체계가 두 가지가 있지요? 무기체계 두 가지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안규백 위원 천룡과 현무-2 아닙니까? 이 정도 아닌가요? 또 다른 무기체계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저희는 여러 가지 지대지 또 공대지, 이런 형태의……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현무-2하고 천룡 아닌가요? 이 두 가지 외에 또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여기서 제가 구체적인 무기체계, 어느 무기체계를 가지고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지난 4일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을 보면, 여기 3페이지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위력 확인을 위해서는 고농축 우라늄 실험을, 그 다음에 소형화 목적을 위해서 플루토늄 실험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의장도 동의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이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다 방점을 두고 준비하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세 가지 경우를 다 같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그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다라고 하는……

○안규백 위원 고농축에다 방점을 두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전부 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세 가지가 다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로 북한 입장에서는 탄도 소형화만 남은 것이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수준에 도달을 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계신가요, 우리 군에서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 수준에 와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상당 수준이라는 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느 수준이 상당한 수준인지……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을 개발하면서는 항상 그걸 목표로 해서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된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어떤 상황으로 봐서, 정황으로 봐서 상당 부분 진전이 됐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위원장님, 의장이 답변을 좀 더디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1분 쓰십시오.

○안규백 위원 북한의 핵실험 때, 핵실험 할 때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핵실험 전에는 조금 제한이 되고, 우리가 직접 확인하기에는. 핵실험 이후에 거기서 어떤 핵물질들이 방출이 됐을 때 그것을 확인해 보고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규백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2차 핵실험 때 그 핵실험에서 나온 핵종을 포집하는 데 실패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원천적으로 포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통상의 경우에는……

○안규백 위원 다른 방법이 또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닙니다. 결국은 그 방사능 핵종이라고 하는 것이……

○안규백 위원 그것을 포집을 해야 되는데……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실험장으로부터 유출이 되면 그것을 포집하는 것인데, 지하 핵시설의 밀폐 정도가 아주 양호할 경우에, 통상은 아무리 밀폐를 잘해도 여러 가지 틈새를 통해서 그게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밀폐가 잘 돼 있을 경우에는 양이 지극히 적든가 해 가지고 때로는 탐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마지막으로 오늘 본 회의가 끝나기 전에 우리 임관빈 장군께서는 여러 위원들이 집요하게 말씀하셨던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서…… 참 굉장히 포장은 잘 된 언어 표현입니다, 이게. 언어 표현인데, 여기에 있는 국방위원들이나 여러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해요. 궁금하니까 공개할 수 있는 범위, 수준까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마지막입니다.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감시하고 있는 위성 또 정찰기가 실시간에 연속으로 단절 없이 할 수 있나요? 인터벌이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저희들의 정보수집 능력과 제한사항을 그대로 노출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우 노력을 집중해서 감시하고 있고, 그러나 또 항상 어느 정도의 제한사항은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언론에 보도가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인터벌이 얼마 정도 있고, 우리 위성이 지나가는 시간도 정확히 북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피해서 한다는 것까지도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런 형태의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지금 원론적인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핵실험이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게 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기보다는 대화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런데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하면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해 봐야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핵개발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위협이라기보다는 국제 무기 수출 차원으로 보는 게 어떠냐 하고 질의한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적이 핵실험을 하고, 핵 능력이 강화되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에 매우 심각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특히 대륙간탄도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 은하3호가 약 100㎏ 정도의 운반수단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100㎏에다가 태우려고 하면 그 정도 소형화는 안 됐다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 쏠 수 있는 스커드나 노동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태울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의 위협이라고 봤을 때 핵무기가 개발되면 미국에 대한 위협이 아

니라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 제일 우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동의합니다.

○한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PAC-3급의 MD체계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갖추어져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중요 시설 위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제한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이것도 지금 한계가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우리 KMD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는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 국회에서도 많은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한기호 위원 아니,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소요되는 기간을 대략 어느 정도로 예측하십니까, 충분한 예산을 드린다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하게 연도를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연도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차피 미사일 요격체계라는 것은 핵미사일 요격체계이기 때문에 핵을 다시 시험하고 그것을 무기화시켜서 미사일에 얹어야 되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지금 사실 달리기 경주한다고 봐야 됩니다, 누가 빨리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이 있을 부분이고,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하는 것도 국민들한테 보여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핵에 대해서 계속 개발한다면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가질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뭐라고 정해야 되느냐? '북괴 지도부에 대한 몰락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정해야 돼요. 이게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괴가 지도체제를 생존시키기 위해서 시험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생존에 대한 그것을 '못 가게 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못 얻게 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불명확한 것 같다는 거지요.

지금 거론하지 않는 제재방법들 몇 가지를 제가 예를 들면, 이것은 의장님이 전부 다 고려할 요소는 아닙니다만, 개성공단에 대해서 폐쇄하겠다는 카드를 왜 꺼내지 않느냐…… 꺼낼 필요가 있지요. 또 인도적 지원도 중단하겠다, 이것도 꺼낼 수 있지요. 또 우리가 심리전을 재개하겠다, 이것도 꺼낼 수 있지요. 이 구체적인 카드들을 왜 안 쓰느냐는 거지요. 또 연합사 해체 연기시키겠다, 또 국방개혁 추진 중단하겠다, 무인공격기도 전력화 조속하게 실시하겠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카드가 있는데 한 번도 이런 카드가 무엇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전부 질의했을 때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카드가 안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중국하고 관계에서도 중국에서 가시적으로 보여 줘야 됩니다. 지금 북한에 제공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서 감축해서 지원한다면 그것은 가시적으로 보여 주는 겁니다.

지금 춘궁기가 곧 올 겁니다. 그러면 춘궁기에도 곡물 지원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 줬을 때 북한이 움직이지, 북한이 언제 말로 해서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가시적인 게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우리가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언론에도 '우리 이런 카드를 쓸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카드를 지금까지 하나도 언급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명확하게 북한 지도체제가 스스로의 지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 것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전략을 세워 나가면서, 또 정책을 세워 나가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끝내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

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워낙 오랫동안 관심이 많아 가지고, 합참의장님 나오셨는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는 것은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방금 한기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까지 했던 그런 지킬 수 없는 말들을 지금 상황에서 반복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우리 국방부나 우리 군으로서는 이제는 진짜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핵개발을 계속 강행할 경우에 북한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기호 위원님 몇 가지 상식적이라고 하신 그런 수단들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합참의장께서 답변을 못 하실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군사적인 그런 문제들은 우리 군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외교부가 6자회담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무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 가지고 비핵화 문제 저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여야 간에 과거의 퍼주기가 북한 핵개발을 갖고 왔다느니 이런 정쟁을 불러올 수 있는 이야기는 저는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상황이 워낙 엄중한데 이런 상황에서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게 그냥 플루토늄 40kg에, 뭐 옛날 7년째 듣던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확장억제라는 것도, 불과 3개월 전에 장관께서 미국 가셔 가지고 SCM 하신 그 원본을 읽어 보면 확장억제라는 게 무슨 맞춤형억제 전략이다, 확장억제나 이런 게 이제 겨우 무슨 공동의 개념과 원칙을 승인한 이런 단계밖에 없는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게 우리 군의 대응방안이 되는 것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국민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대응전략이나 이런 게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지금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도발 원점을 바로 타격하고 지원 세력까지도 타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휘부까지도 타격하겠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핵무기 도발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군이 국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는 이렇게 대응하고 있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게 전혀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국민들께서 오늘 이것을 보시면요, 선제타격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委員長 劉承旼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사일을 탑재해 가지고 이동식 발사대에서 남한을 향해서 쏘려고 그런다, 징후가 포착됐다 그러면 선제타격 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선제타격을 하면 전면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선제타격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게 전면적인 전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아니지요, 잠깐만요. 의장님,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우리한테 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감지, 발견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선제타격을, 만약 북한이 다섯 발을 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섯 군데 다 선제타격을 했다 칩시다, 우리 공군용 내지는 우리 지대지미사일로. 그러면 그게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안 갈 가능성보다 훨씬 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군은 그런 전면적인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핵무기는 절대 못 쏘도록 하겠다라는 확고한 의지가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징후를 확실하게 보일 때는, 그런 의도를 보일 때는 아까 말씀대로 그것을 맞고 전쟁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사전에 제거하는 게 전쟁이 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제타격 할 것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분명히 '전쟁을 감수하고라도 선제타격 할 거다' 이 말씀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래서 아까 안규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미국하고 한미동맹의 무슨 맞춤형억제 전략이다, 확장억제 전략이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애매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핵무기가 이제는 완전히 무기화되는 직전 단계에까지 와 있다고, 그렇게 뭔가 증거를 갖고 알고 계시든 아니면 추정을 하시든 간에 우리 군으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슨 군사기밀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억제를 하는 것은 적이 어떤 나쁜 행동을 했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보다 얻는 피해가 더 많다라고 생각할 때 억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맞춤형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까지를 포함해서 수립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적들도 알게 하는 그러한 형태로……

○委員長 劉承旼 오늘 이런 자리가 적들이 알게 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춤형억제 전략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면 적들이 어떻게 우리 군이 '정말 무섭다' 이걸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한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고, 이제 한미 간에 그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또 적절한 시기에는 그것을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국민에게 또는 적에게 알리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委員長 劉承旼 2차 질의 하시겠습니다.

2차 질의 하실 분이……

거의 다 하시면, 1차 질의 순서대로 하시면서 안 하실 분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야 간사님들, 2차 질의는 5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규백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예,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준 위원 지금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생산하고 있지 못하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영변 5MW 원자로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진성준 위원 그런데 기왕에 KEDO에서 추진 중이었던 경수로를 북한이 자력으로 건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KEDO에서 건설하고 있는 것을 자력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정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플루토늄 생산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고농축 우라늄의 생산 규모가 연간 한 40㎏ 정도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영변에 있는, 헤커 박사에게 공개된 2000개의 원심분리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영변 말고 다른 데는 원심분리기 기지가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들이 주장한 것이 2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맞다면 그것을 연간 계속해서 운용한다면 1년에 한 40㎏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은 영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기지 외에 다른 생산기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군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정확한 정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성준 위원 보도에 따르면 우리 정보당국자는 북한에서 한 240㎏ 정도의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변 외에 한 서너 군데 더 되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기지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헤커 박사도 영변 외에 추가로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군은 어떻게 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우라늄 농축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렇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그런 시설들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영변 외에 다른 데에는 HEU 시설을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파악하고 있는 게 없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그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북한의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우라늄 생산기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또 북한이 이동식 발사차량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미사일 발사 원점을 사전에 포착해서 타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실제로 완벽하게 제거할 수도 없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군사적인 대비태세에 대해서 얘기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완벽한 대비태세가 될 수는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우리 지금 PAC-3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KAMD 시스템 자체가 적어도 요격시스템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상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핵무기를 중간에 요격한다고 할 때 거기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낙진이라든지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한 피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에는 핵을 장착한 무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중에서 요격했을 때 그게 바로 핵폭발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파괴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오염물질이 생긴다거나 하는 그러한 부분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핵이 폭발했을 때의 피해와 비교하면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요격을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요격을 해야 되는……

○진성준 위원 예, 물론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받는 피해는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확장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완성단계가 아니고 지금 개념 구상단계이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을 한미 간에 협의해 가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그게 군사적인 대비태세 외에 다양한 측면의 전략들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전략도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확장억제 그 자체에 비핵화 6자회담과 같은 그런 회담이 들어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정책실장 답변할 수 있으면……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에는 6자회담과 연계된 전략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핵을 무기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니까 주로 군사적인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에 해당하는 거구먼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지요, 여기에는 다임(DIME) 요소, 즉 외교적 상황 또 정보적 상황, 군사적 상황, 경제적 조치, 이러한 노력들을 전부 망라하는데 저희들은 군사적 요소에 대해서 더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억제 전략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까 우리 군사적 대비태세만으로는 불충분하다라는 말씀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 저는 그런 군사대비태세를 갖춤과 동시에, 저는 그것이 굉장히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내지는 군축 협상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합참의 권한 밖의 일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차원에서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 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의 계획, 이런 것들이 아울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기본적으로 6자회담을 기본적인 틀로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형태의 대화가 진전이 된다면 그것도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는 장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양자 간의 대화도 추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자꾸 미군 겨냥한 거라고 하지만 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의 핵개발이 우리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으로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안보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요.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대칭 전략무기 아닙니까? 이것을 안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것을 비핵화시키는 것이 사활적인 요구 중 하나지요, 군사적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과 별개로. 따라서 우리 군이 또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추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92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 북한은 최근에 그것을 파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만 비핵화 선언을 추진하고 성사시킨 당사자는 북한과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우리는 북한에게 끊임없이 92년도에 맺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준수하도록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준수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 보십시오. 자기가 실컷 개발해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무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상호간에 군사협상이나 군사 회담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동의하시느냐고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남북 간의 그러한 대화는 전반적인 남북 간 대화채널, 그런 것의 일부로 어떤 여건이 성숙돼서 군사적인 회담이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군사당국 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성준 위원 국방부도 의지를 갖고 해 가야 된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委員長 劉承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찬 위원님 5분 질의하십시오.

○김성찬 위원 의장님, 답변 내용이 전체적으로 못 알아듣겠습니다. 너무 개념적이고, 두 번째는 대비태세가 상당히 염려스럽다,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보안 때문에 말씀을 다 못 하시는 것으로 그런 이해도 하지만 국민의 우려와 국민의 걱정을, 또 대비태세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를 보여 줄 필요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숨바꼭질 하듯이 감추고 쫓고, 숨기고 밝히고, 이런 모습 말고 정말로…… 국가 책무가 무엇입니까? 안보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국가의 책무인데 그것을 지금 의장님께서 대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보안 유지하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답변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핵실험을 하고 나면 국방부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핵실험 하고 나면?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핵실험 하고 난 뒤에. 대비태세가 이렇다 이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우선 일단은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김성찬 위원 아니, 자꾸만 핵실험 하고 난 뒤에 뭐 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핵실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일단 핵실험을 하고 난 뒤에는,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이게 나중에 실질적인 핵위협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 하나……

○김성찬 위원 그런 것 말씀하지 마시고 좀 알아듣도록, 딱딱딱 국민들이…… 자, 봉쇄를 한다, 타격을 한다, 그다음에 대화를 안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매일 개념적인, 추상적인 미사여구 쓰시는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핵실험 하고 난 뒤에 군에서 뭐 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이 문제는 군사적으로만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대응을 합니다마는 군사적으로는……

○김성찬 위원 아니, 군사적인 분야로 말씀을 해요. 참 답답하시네. 영역 범위 내에서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외교부라든지 정부 것 지금 말씀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핵실험 이후에 적들이 할 수 있는 게 이것을 실질적인 핵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핵위협 내지는 핵공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핵 이후 다른 분야에서의 직접적인 군사도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면서 직접적인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김성찬 위원 의장님, 핵실험 얘기하는데 왜 도발에 대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참 답답하시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김성찬 위원 핵실험도 도발 아닙니까? 도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핵실험, 북한이 중요한 도발을 하였는데 어떠한 조치를 하느냐, 이것 질문했는데 왜 자꾸만 핵실험 이외에 추가로 파생되는, 배경이 되는 다른 군사적 도발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핵실험이 중요한 도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 이후의 조치는 핵실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조치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성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방부에 핵전문가가 있습니까? 핵에 대한 전문부서와 핵전문가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을 전공한 박사라든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전공이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보와 대비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부분 또 기술적인 부분 능력, 이런 것을 정말로 딱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런 전문가들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김성찬 위원 전담 부서도 있고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전담 부서도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여기 같이 나왔습니까? 이런 데 같이 오셔야지요,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우리 기술정보과장 와 있는가?

○합동참모본부전략무기·기술정보과장 이성열 예.

○김성찬 위원 기술정보과장이 전문가입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예, 전략무기과장……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북핵 실험 관련해서 북한과 정부가 접촉하는 것은 있습니까? 현재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헤이글 미 국방장관 지명자가 중대한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북한에 대한 봉쇄까지도 하겠다고 청문회 보고서를 낸 것 보셨지요? 지금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 봉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저희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미국도 혼자 하는 일이 아니고 국제사회가 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김성찬 위원 같이 하는데 우리 한국도 거기에 기여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한국 자체가 50%를 하든 30%를 하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거지. 전혀 하지 않고 미국이 다 하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성찬 위원 어느 수준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PSI에 대한 동참이나 그러한 것들은……

○김성찬 위원 우리 자체의 봉쇄능력이 어느 수준이냐고요? 전적으로 미국에 맡길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선제타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겠는데, 핵실험이 도발이니까 여기에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장차 있을 수 있는 핵을 개발해서 소형화 탄두를 만들어서 미사일에 넣었을 때 선제타격 하겠다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에 대한 선제타격은 기본적으로……

○김성찬 위원 핵실험에 대한, 이런 핵 도발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적이 핵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박 징후가 있을 때……

○김성찬 위원 그러면 실험은 사용입니까, 꼭 핵무기를 유도탄에 넣어서 우리한테 도발할 때 그때 선제타격입니까? 어느 때 선제타격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무기를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용……

○김성찬 위원 그러면 지금 가까운 장래는 선제타격 할 일이 없네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적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김성찬 위원 아니지요, 북한이 지금 핵무기 현재까지는 소형화 개발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성찬 위원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되어 있다고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상당 부분 진척이 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김성찬 위원 진척이 있는데, 그러면 북한이 지금도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여기에서 확인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핵실험에 관련해서는 선제타격이라든지 이런 용어는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것은 어떤 상황 변경이 생겨서, 또 어떤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는……

○김성찬 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고……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그 당시의 대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지금 3차 핵실험 때문에 전 세계가,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차 핵실험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장차……

○김성찬 위원 아니, 3차 핵실험 가지고 이야기 하시자니까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장차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이 시간 현재 핵실험장에 대한 선제타격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찬 위원 아니, 핵실험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없다 이거지요, 선제타격은?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과 관련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명확히……

○김성찬 위원 지금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선제타격 하는 부분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다른 곳에서 핵무기를 넣어서 장거리 대포 등을 쏜다든지 잠수함 도발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3차 핵실험에 관련해서는 선제타격이라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성찬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진 위원님 안 하시고요?

○김광진 위원 예.

○김종태 위원 위원장님!

○委員長 劉承旼 하시겠습니까?

○김종태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김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 대한민국 군을 대표하는 의장님께 제가 국민의 입장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핵실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걱정을 아주 크게 해야 됩니까, 안심해도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김종태 위원 안심할 수준은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을 해서 적들의 핵능력이 향상이 된다면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심각한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김종태 위원 매우 심각하지요? 그러면 현재 여러 가지 북한의 핵실험 중단 활동을 하고 있는데 중단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한국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북한 핵실험이 성공했을 때 한국군의 대응조치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일들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김종태 위원 제가 좀 이따가 한꺼번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있느냐, 없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강구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김종태 위원 유엔 안보리에서는 군사적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언론의 발표를 봤는데 의장, 보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

○김종태 위원 좋습니다. 만약에 합참에서 조치한다라고 하면, 명령이 떨어지면 군사적인 조치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 군사적인 조치 중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이 시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 관련 시설, 표적정보를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표적을 알고 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걸 지금 100%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거거든요. 군인이 과연 북한 핵시설 관련되는 정보를 알고 있느냐 없느냐, 알고 있다, 없다 하는 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정보에 대해서 우리 군이 군사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국민들은 군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부족하다고 하면 이러이러한 면이 부족하니 이것을 긴급히 조치해 달라, 이것이 합참의장의 요구사항이고 국회에서 그걸 논의해서 조치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말 수식어 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장관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실 수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사거리 800m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도록 지시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빨리 할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난번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게 15년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의 증원이라든가……

○김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한 15년도를 목표로 두고 말씀하셨다 이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다음에 의장께서 오늘 말씀이 정밀 공격무기 전력화를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 몇 년도에 가능하십니까? 염두에 두신 무기는 서로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무기들을 확보한다면 어느 시점이 가능하겠느냐 이겁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연구인력의 확충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김종태 위원 목표 연도가 몇 년도냐 이거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건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종태 위원 무기 연도 이야기하는데, 의장이 여기 제시한 목표 연도 이야기하는 게 뭐 비밀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태 위원 구상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떤 무기체계라면 비밀인데 목표 연도 같은 것은 국민이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대충 한 15년도, 13년도를 보면 한 2~3년, 아직까지는 우리가 요망하는 것까지는 제한된다, 제한되지만 나머지 수단 가지고 또 어느 정도 합참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종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바라는 것은 현 수준에서 우리가 조치할 수 것, 대비를 이런 것까지 했다, 공개는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제한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한미공조로 협상하고 있다, 협상이 완료되었다, 아니면 앞으로 협상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최소한 국방위원은 알려 주고 필요하다면 국민에게 알려야 된다 이겁니다.

정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대한 일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나 대국민에 대해 어떤 발표 하나 없어요. 어디 정부나 합참이나…… 북한은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 언론, 신문에 돌아다니는 이야기 가지고 국민이 전부 다 듣고 있지 정부 측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없거든요. 최소한에 합의되어 가지고 국민에게 발표할 수준은 발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6자회담의 틀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합참의장께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의장님은 아시고 말씀드린 걸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북한은 선군정치이기 때문에 6자회담의 대표로 나오는 우리 외교부장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김계관 쪽에서 나오는 6자회담은 하고 나면…… 지금 제거된 걸로 알고 있는 모 장군이 안 된다며 일언지하에 끝났잖아요? 그것이 북한의 선군정치 아닙니까?

제가 현역에 있을 때 미군에 정식으로 이야기한 바도 있었습니다. 미 측에서 그렇게 6자회담이면 판판이 실패다, 왜냐, 얼굴마담이고 실권도 없는 사람이 6자회담에 와 가지고…… 이 핵개발은 핵심 축이 어디입니까? 군부입니까, 민간입니까, 합참의장이 지금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군이 주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태 위원 ‘했을 것으로’가 아니고 정확한 인물정보까지 나와 있잖아요. 군이라 이거지요. 그러면 선군정치 하는 데 있어서 북한 민간정부에서 개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6자회담은 아무리 해 봐도 성과가 없다는 거지요. 군부의 결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를 하고 거기를 어떤 조치를 하지 않는 한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도 군사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우방국과 협의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을 때 북한이 꿈틀거리지 그렇지 않는 것은, 지금 발표되는 것은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그것을 명심하시고 군사적인 조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집행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획만큼은 한미 공동으로 해서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참모님들하고 한번 전부 상의를 해서 수립할 것은 수립하고 국민에게 발표할 것은 발표해 주신다면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태 위원님 질문 중에 우리가 선제타격을 한다면 표적정보를 다 안 갖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

○委員長 劉承旼 아니, '표적정보를 갖고 있느냐?'고 물으시니까 '다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다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저희들이 북한의 핵과 관련된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100%이냐, 그것이 확실하냐, 그것 말고는 없느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설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과거에 2009년입니까? 김태영 장관 인사청문회 때 김태영 장관후보자께서는 핵 관련된 표적은 평소에도 우리가 표적정보를 다 갖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지시만 떨어지면 바로 쏠 수 있는 것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의장님 말씀은 그런 것이 다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평상시에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김재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재윤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김재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의장님,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군사공격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제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싸우지 않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남북 모두 공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요.

결국 대통령 그리고 또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너무 한 쪽으로 몰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적 협상과 외교적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협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군은 어떤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쟁을 불사하는 것은 마지막까지도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의 핵실험 징후만을 가지고 선제타격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설령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선제타격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징후만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제타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군이…… 물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 군이 해야 될 임무이지만 선제타격은 핵무기를 확실히 쏠 거다라는 무슨 확실한 물증이 있을 때 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불사하는 선제타격을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선제타격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군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제타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장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을 공격할 명확한 징후가 있을 때 그것은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가 선제타격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실험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을 안 한다는 것은 군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합참의장이 밝힌 대로 핵실험이 아니라 핵공격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김재윤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북한의 핵실험 이후의 대응책과 이전의 대응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라는 것들을…… 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고, 그러면 만약에 핵실험을 한 이후에 우리 군 그리고 또 우리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적절하게 낼 것인가

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하는 것을 가정한다면 우리 군이 이후에 어떤 대응책을 할 것인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핵실험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군도 어떤 외교적 노력 또는 경제적 분야의 노력 등등 여러 가지 DIME 수준의 노력에 의해서 핵실험이 억제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할 경우에 우리 군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대비책을 항상 강구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과연 핵실험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우선 중요한 것이 적이 핵실험 이후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을 해 오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핵실험 이후에 그런 어떤 능력을 기초로 해서 다른 형태의 도발들, 그게 전방지역에서 화력도발이 될 수도 있고 서북도서지역에서의 어떤 도발이 될 수도 있고 후방지역에서의 테러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억제도 하고 경계태세도 유지하고 그리고 만일에 그들이 그러한 도발을 해 올 경우에는 단호하게 응징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윤 위원 지금 문제는 북한과의 협상 채널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협상 채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북한 핵실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외교적으로 풀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협상 채널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군만 불러 세우고 적극 대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면 최소한도로 북한과의 협상 채널을 만들어서 벼랑 끝으로 몰지 않고 평화적으로 풀 수 있는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송영근 위원 아까 풍계리 사진을 보니까 대단히 높은 산악지대예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송영근 위원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까지 감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는 모든 것은 영상정보에 100% 의존하는 것 같다, 맞습니까?

영상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수단 가진 것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을 제가 지금 무슨 정보, 무슨 정보를 가지고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송영근 위원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국의 영상정보에 거의 대부분을 의지해서 이와 같은 국가의 아주 대단히 심각한 위협들이 감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정보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휴민트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다가 휴민트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감시할 수 있지 않은가?

나는 우리 능력 있다고 봅니다, 특전사. 여단장해 보셨습니다마는 특전사 물어보면 '언제, 어디서, 어떠한 임무가 주어져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60년 동안 인력 길러 왔고 장비능력 보강해 왔고 훈련시켜 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국가의 위협 때 안 써먹으면 언제 써먹을 겁니까, 그것?

그다음에 정보사에 가면 공작팀 있어요, 그렇지요?

이러한 국가의 위협을 미국의 영상정보에만 의존하려는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다시 저것 해서 이제는 우리가 갖춘 수단을 이용해서 보다 정확한 시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을 텐데 합참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지 않았는가 하는 이 점을 한번 촉구시켜 드리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앞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답을 줘 보세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다양한 정보 수단을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본질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것도 미국의 능력이 아닌 우리 독자적인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송영근 위원 아니, 이것은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가…… 북한의 핵개발이 완료된다면 우리 전략 완전히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리스크, 했을 때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 것 아

니에요? 북한 애들 군복 입혀 가지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하다가 잡히면 뭐…… 위장 등 얼마든지 공작기술은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게 겁나 가지고서는 그런 수단을 우리가 수십 년 길러 왔어도 안 쓰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가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구상 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다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근 위원 충분히 의장님의 입장은 이해되는데 나는 우리 군이 보다 적극적이고 포지티브하게 우리의 당면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언제까지나 미군에 의존해 가지고 뭘 풀어 나가려고 그러는 이런 데서부터 사고의 과감한 발상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촉구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독자적인 능력을 가져야 된다,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 제가……

○송영근 위원 하나 더, 있는 것은 써먹어야 된다,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잘 알겠습니다.

○송영근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입니다.

○김형태 위원 저는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적이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으면 선제타격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계시는데요. 우리를 공격할 징후,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선제타격을 했다, 그러면 아까 유승민 위원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우리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제공격했다,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틀림없이 전면전으로 확전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방법 외에 존경하는 송영근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 특수부대나 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할 징후가 있기 전이라도 핵 자체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런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만하다, 특히 국제사회가 우리 편이라면 더더욱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중국의 입장, 지금 공개적으로 미국은 중국을 설득해서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만류케 한다는 전략을 쓰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중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 우리 군은 중국군과 협상을 하든지 접촉을 해서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중국군과 우리 대한민국 군과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일정 부분의 협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정보교류회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그러한 절차를……

○김형태 위원 지금 이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접촉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마 정보교류회의가 곧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회의가 열리고 하면 거기서 서로의……

○김형태 위원 그런데 결국은 적극적으로 지금 접촉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접촉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결국 중국에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중국군이 북한이 핵실험을 못 하도록, 핵개발을 못 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외교부뿐만이 아니고 군 쪽에서도 그러한 군사외교를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억제하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 그것은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김형태 위원 그리고 은하3호 발사 이후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북한은 그런 결의안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오히려 3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이 만약 안보리 대북 제재에 동참을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물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요, 북한이?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그렇습니다.

○김형태 위원 물리적 조치가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여러 가지 형태의 도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북도서나 전방 DMZ 일대에서의 화력 도발 또는 서북도서에 대한 강점 시도, 후방 지역에서의 테러 또 물리적인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이버 위협 등등의 여러 가지 도발 행위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김형태 위원 철두철미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지금 현재 상황을 아주 정말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고 어떡하다가, 20~30년 계속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막판에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국민들의 질타가 많습니다. 불안하고요.

정말 더 잘하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손인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규백 위원님 하십시오.

손인춘 위원님 하십시오.

○손인춘 위원 합참의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한이 핵을 탑재한 탄도탄을 국내로 발사할 경우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탐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최근에 전력을 더 보강하기도 하였고 그다음에 타격하는 수단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으나 그게 많은 면에서 능력이 제한되고,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더 보완할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지난 국정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현재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 연합 해상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세종대왕함은 북한의 탄도탄과 미사일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는 있지만 북한의 탄도탄을 공격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의 이지스함과 비교도 봐도 우리나라의 이지스함만 탄도탄 방어능력이 없습니다.

세종대왕함에 방어용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가 따로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로서는 저희의 기본적인 미사일 방어의 개념이 저층방어 위주의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세종대왕함에 방어용 미사일을 탑재하지 않는 이유가 저층방어용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태의 미사일은 아닐는지 몰라도 다른 형태의 미사일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형태의 무기체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춘 위원 북한의 핵 위협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 미사일 억지력은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억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은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MD체제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상층방어용 유도탄이 필요 없고 또 SM-6급 하층방어용 미사일만 구축해도 대북 미사일 억지력은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본다고들 얘기가 많습니다.

합참의장님께서는 대북 미사일 억지를 위한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킬 체인, 즉 적의 미사일 시설을 탐지해서 식별해서 결심해서 타격할 수 있는 능력, 거기에는 감시수단부터 시작해서 정밀타격 능력까지 다 필요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은 억제 수단이고 가장 좋은 대응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사되는 미사일이 있을 때 그것은 공중에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조기에 전력화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손인춘 위원 이번 3차 핵실험은 북한이 핵무

기를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우리 국민들은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불안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다각적인 외교 노력도 중요하고 한미 공조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국토를 지킬 수 있는 방어력 증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손 위원님에 이어서, PAC-2가 방어하는 데 제한적이기 때문에 PAC-3나 L-2를 지금 계획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PAC-2의 성능 개량이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대공 미사일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대유도탄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개발 이러한 것들을 전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억압에도 불구하고 1·2차 핵실험을 했고 제재할 때마다 더욱더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에 의해서 나름대로 고강도 전술을 계속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응징과 억압의 일변도보다는 대화와 타협 같은 이런 다변화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두 가지 다 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것은 주로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대화를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군사 분야보다는 다른 분야에서 많이 하는 것들이고, 그러한 것들이 실패해서 현실적인 위협으로 됐을 때 군은 어떤 물리적인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존경하는 김형태 위원님 지금 안 계십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중에 그렇게 하면 전쟁 날 것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적들이 핵무기 공격을 할 때는 이미 전쟁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핵무기 공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어터지고, 우리가 먼저 얻어맞고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선제타격을 하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규백 위원 얻어맞는다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김태영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당시 후보자가 북한 핵시설 선제타격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인 4일 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핵을 사용할 징후가 뚜렷해질 경우 선제타격 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군 관계자가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힌 것은 김태영 전 합참의장이 밝혔던, 군 작전을 책임지는 합참의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힌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현재 선제타격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방법에 대해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또 미국과 실무적 접촉을 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방금 국방부 관계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규백 위원 예, 그렇습니다. 4일 날.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누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밝힌 것인지 아니면 그냥 어떤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그것에 대한 선제타격은 미국하고의 협의를 해야 가능한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자위권적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자위권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 대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미 측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한다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아까 국방부 정책실장께서도 얘기한 종합적인 확장 억제 맞춤형 전략들 그러한 것들을 미 측과 공유해 가면서 한다는 것이지요.

○안규백 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이미 그렇게 브리핑 비슷하게 했는데 말이에요, 국방부 관계자가.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공식적인 브리핑……

○안규백 위원 임 실장님, 지금 제가 신문 가져와 볼까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것은 브리핑한 사안은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 공식 브리핑이 아니더라도, 오프더 레코드로 했으니까 그 말을 인용해서 했겠지

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것은 맞춤형 억제 전략이 한미 간에 논의되고 있다는 사항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지금 실무적 접촉도 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실무자 접촉이요?

○안규백 위원 예.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실무자 접촉 하고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맞춤형 억제 전략은 금년 10월 달에 양국 국방부장관 SCM 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선제타격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것은 어떤 안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규백 위원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가장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지요. 선제타격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있으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선제타격 문제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안규백 위원 의장님, 저한테 다 하신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선제타격을, 적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선제타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안 위원님 말씀 중에 선제타격을 포함해서 이렇게 논의하고 하는 그런 것은 한미 간에 어떤 맞춤형 전략을 세워 간다는 것이지, 어떤 부분은 한국이 담당할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이 담당할 부분도 있을 것인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를 안 했다고 합니다마는 제가 지금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에는 그런 말씀으로……

○안규백 위원 당시 김태영 합참의장이 밝힌 의지 내용과 4일 날 국방부 관계자가 말한 내용이 온도 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재차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변화가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김태영 합참의장 때 했던 그 내용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선제타격과 관련해서는 김태영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 때 했던 말이나 제가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의장님이 한 말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안규백 위원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성준 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진성준 위원님 4분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오늘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가 '리멤버 1·21'이라고 하는 민관군경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의장이 이것 보고받으셨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보고받았습니다.

○진성준 위원 승인하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은 제가 승인할 문제가 아니고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진성준 위원 우리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말이지요, 평시에 독립전투여단급 이상의 부대 이동 등 주요 군사 사항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방부장관에게 사전승인 받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이 방금 말씀하신 독립전투여단 이상의 부대 이동에 해당되는 것인지 제가 잘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수도방위사령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왕의 훈련이 수방사 내의 특정 부대 주도로 이루어져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도방위사령부급에서 이

를테면 부대 이동을 하는 훈련이므로 당연히 합참의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제가 이해를 하기에는 그런 부대들이 작전사를 넘어서, 자기 책임지역을 넘어서 부대 이동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받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는 리멤버 1·21 행사에 참여한 수방사 예하 부대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어디로 이동하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아니, 부대 이동의 경우 자기 관할지역을 넘어갈 때에만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자체 내에서 훈련을 위해서 이동하고 하는 것은 승인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전방지역에서 어느 사단이 사단 자기 책임지역 내에서 작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연습을 하고 하는 것은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보고만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자체 계획에 다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수도방위사령부가 저한테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 합참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육군참모총장에게 구두보고하고 화상회의 때 보고한 것으로, 두 번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보고받으셨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닙니다.

○진성준 위원 어떻게 보고받으셨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제 기억으로는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그 훈련계획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언제 보고받으셨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화상회의 때 보고받았다고 합니다.

○진성준 위원 언제 화상회의 했습니까?

이것은 합참의장의 지휘감독권한 내에 있는 부대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리고 군사훈련은 당연히 합참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될 사안이고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현재 훈련은 군정 사항이고 육군참모총장이 통제하는 사항입니다.

○진성준 위원 제가 국군용어사전을 보니까 훈련은 작전에 해당합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작전참모의 책임 분야 중에 훈련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훈련은 지금 현재 각군 총장이 통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UFG 연습이라든가 그러한 대규모 연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선별적으로 합참이 통제해서 하는 연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이루어지는 부대 훈련은 각군 참모총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합참 직제에 따라도 민관 또 민군 또 민관군경 이렇게 합동작전을 할 때에는, 합동훈련을 할 때에는 합참이 정확하게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직제령에 위반되는 것이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합동작전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합참의장이 통합방위본부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통합방위작전에 대해서는 합참의장이 지휘하는 게 맞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수도방위사령부의 리멤버 1·21 합동훈련, 그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합참에게 어떻게 보고되고, 어떻게 승인되고, 또는 기왕의 훈련들은 어떻게 보고되고 승인되는지의 여부를 종합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잘 알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그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 대통령경호실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신문에서 그런 것을 읽은 적은 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요.

이번에 국방부가 노크귀순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들을 일제히 내렸는데 그 징계가 국민을 경악케 한 사건에 비해서 형편없이 봐주기, 감싸주기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노크귀순자, 병사가 들어온 직후에 지역 부대에서 합동신문을 벌였습니다. 그 합동신문 결과를 22사단장으로부터 합참 정보융합실이 보고받았어요. 그 보고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거나 비문이라면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 규정을 잘 보고 필요한 만큼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의장 산하에 정보본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정보본부장이 당시에 의장에게도 노크귀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한 바 있어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런데 작전본부장과의 이를테면 보고 차이로 작전본부장의 의견을 중시했던 거잖아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와 관련해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으므로 그 귀순자의 신문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규백 위원 조금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의장님, 사람이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면 둔감해지기 마련입니다. 정작 집중력이 필요할 때 그 집중력이 떨어져서 임무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지요. 최근 삼사 개월 동안 뒤에 계신 우리 지휘관들이나 장병들이 군사대비태세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을 것 같은데 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그런 세심한 인간적인 면까지도 좀 배려해 주시고 지휘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잘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최근 위성사진을 근거로 보면 북한 풍계리 지역 동향에 대해서 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풍계리 지역에 지금 3개 정도의 갱도가 있는 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저희들이 3개 정도의 갱도를, 그중에서 2개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인가 그분께서는 5개 정도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풍계리에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저희들이 2개를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전체가 몇 개인데 2개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것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렇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지난 태풍 피해로 갱도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하시기가 좀 곤란하겠네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갱도라기보다 갱도에 이르는 진입로라든가 또 진입로 상에 놓여 있는 교량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좀 피해를 입은 것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복구된 것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핵실험 준비 작업을 포착하고 구체적으로 계속 팔로우업한 시기가, 언제 정도에 그것을 포착하고 있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3차 핵실험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규백 위원 예.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풍계리 지역은 사실상 제가 의장 시작할 때부터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안규백 위원 계속 정밀 추적을 해 왔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보아 왔던 시설입니다.

○안규백 위원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백군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군기 위원 예.

○委員長 劉承旼 혹시 백군기 위원님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왜냐하면 지금 2시부터 시작해서 3시간 반 동안 정회 없이 했기 때문에 혹시 계속하실 것 같으면 정회를 하고, 안 그러면 백군기 위원님 질의를 마지막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7분 플러스 5분 이렇게 했습니다. 연평도까지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연평도에 다녀왔습니다. 민주통합당이 한반도평화안보추진위원회를 이번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지금 북한이 핵실

험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동북아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안보 문제, 그것을 바탕으로 한 평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오늘 선언을 연평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연평도에 가서 하고 왔습니다.

연평도에 가 보니까 우리 해병 장병들이 그야말로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수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대단히 믿음직스럽고 북한이 그런 모습을 본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핵실험을 중지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여튼 우리 의장님 예하에 있는 모든 장병들이 그렇게 다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경계태세를 잘 강화하고 있는데 의장님 각오는 어떻습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가, 유엔에서 해야 될 것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재조치를 어떻게 더 강도를 높일 줄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또 핵실험이라고 하는 게 직접적인 살상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적인 직접 조치를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울 테고, 그래서 과연 우리 정부나 군이 핵실험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참 막막해요.

의장님,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비밀이 아니면 여기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시기 전에 몇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이미 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에 정말 심각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국제사회와 협조해서 이것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군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국가의 여러 다른 부처까지를 같이 노력을 통합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만일에 핵실험을 하면 또 국제사회의 단호한 입장이나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나온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보다는 더 강한 결의를 하고 더 강한 제재를 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군사적으로 볼 때 적들이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 군사적인 관점에서는 핵무기를 개발했다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 위협을 하고 공갈을 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핵실험과 병행해서 다른 형태의 군사적 도발들,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핵 사용 위협에 대해서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한미 공조하에 이루어지는 확장억제 전략, 이러한 것들을 잘 구사하고 해서 더 이상 핵 가지고 위협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미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다른 형태의 도발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실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직접적인 도발들이 있을 때는 이것을 단호하게 응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자신의 대응능력들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크게 봐서 적이 핵을 사용하기 전에 이를 탐지, 식별, 결심, 타격할 수 있는 소위 킬 체인(Kill Chain)의 완성, 그것을 위한 우리 독자적인 능력의 구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 또 그와 아울러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사일이 사용되거나 또 비행기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우리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구축 이러한 것들이 매우 긴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위해서 소요도 제기하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군이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셔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백군기 위원 북한 핵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따

로 없이 거기에 아주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핵에 관련한 질문을 하면 아마 제가 오늘 이 회의를 전부 안 봤기 때문에 다시금 또 의장님께 중복되는 답변이 나올 수 있을 우려가 있어요, 제가 안 들어봐서. 그래서 핵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이번에 2월 5일 날 조선일보에 나온—핵과 관련되지 않은 내용인데—내용에 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북의 연평도 도발 시에 공군 지원에 대해서 말하니 군의 고위 관계자가 교전규칙을 얘기하면서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 내용을 보셨지요?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봤습니다.

○백군기 위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마무리하십시오.

○백군기 위원 그 앞에 또 얘기하시는 걸 보면 군 출신들은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인데 이것을 또 곰곰이 씹어 보면 통수권자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교전규칙을 협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아마 군에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뉘앙스가 마치 우리 대통령께서는 정말 공중폭격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우리 군인들의 반대에 의해서 안 했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얘기는 안 하셨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내가 합참의장님께 이것을 질문하는 것은 어려운 답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까 우선 말씀을 다 드릴 수 없고, 다만 지금 현재는 어떠한 적의 그러한 도발이 있을 때 아까 공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장에서의 대응 또는 합동전력을 활용한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통수권자로부터 시작해서 말단 병사들에 이르기까지 단호하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백군기 위원 그래요. 하여튼 나는 우리 군에서 그래도 통수권자가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교전규칙에 관한 것을 얘기하면서 확전을 방지하는 데 정말 군이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마치 할 의지가 있었는데 군의 반대에 의해서 안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면 나는 조금은 이것은 다시 한번 인식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군이 최선을 다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소신껏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 찬사를 보내고 경의를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군기 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은 기록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합참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委員長 劉承旼 보도를 보면 대통령께서 연평도 도발 당시에 공군은 뭐다 뭐 하느냐, 이렇게 공습을 지시했으나 군 고위 관계자가 교전규칙에 따르면 공군이 나서면 절대 안 된다, 미국과도 상의해야 된다며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확인을 하시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2011년 11월에 연평도 포격사건이 났을 당시에 열렸던 국방위에서는, 그때 여야 가릴 것 없이 국방위원님들이 왜 공군으로 도발원점을 타격을 안 하느냐라고 다들 말씀하셨고요, 그때 청와대에서 나온 시그널은 확전 방지라는 시그널이 나와 가지고, 그때 김태영 장관님이 말 바꾸는 통에 그 다음날 바로 경질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굉장히, 왜냐하면 대통령의,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국군통수권자이신 분의 인터뷰 내용인데 그것을 군에서……

이것은 나중에 기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의장님께서 확인을 해 보시고 혹시 나중에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고개를 끄덕임)

○委員長 劉承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윤 위원 위원장님께 자료 요청 좀 해 주도록 얘기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말씀하십시오.

○김재윤 위원 의장께가 아니고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겁니다.

지난번 제주해군기지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그러는데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 국방위원들에게 제출해 주도록 국방부에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 중에 SCM 공동성명에도 나오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 그다음에 확장억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질의하셨는데 임관빈 국방정책실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비공개라도 보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것은 지금 토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보고드릴 사안이 없고 그것이 미국과 토의가 되어서 내용이 정리되면 그때 여기 국방위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이것은 내용이 언제 정리가 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게 10월 SCM 때 보고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2013년 올해 10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금년도 SCM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올해 10월 SCM 전에는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 전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다고 보면 됩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렇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예,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질 겁니다.

○委員長 劉承旼 그렇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예.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안규백 위원님, 지금 보고할 내용이 없다는데 어떻게……

○안규백 위원 적이 지금 쏘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그러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委員長 劉承旼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10월 SCM에 개념과 원칙에 합의하는 정도였으니까 3개월 만에 뭐가 지금 보고할 내용이 있다고 저도 상식적으로 믿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억제니 맞춤형 억제 전략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없는 것이지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안규백 위원님,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뭘 보고를 하라는 게……

○안규백 위원 마른 수건 짜기지 지금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후에 받도록 해야지요.

○委員長 劉承旼 그러면 10월에는 SCM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합의를 하는 것입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정리를 다 해서 맞춤형 억제 전략을 한미가 EDPC 그 회의에서 합의를 해서 양국 장관에게 보고드리고 그 내용을 승인받게 되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우리한테, 국회 국방위에 보고할 준비가 되면 10월 전이라도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하여튼 최대한 보고드릴 수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 보고를 한번 중간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한미가 공동으로 논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 혼자만의 결정으로 할 수는 없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지금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지요.

○委員長 劉承旼 작년 10월 이전에는 억제 전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작년 10월 이전에는 맞춤식 억제 전략의 내용은 없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전혀 없었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북한 핵무기에 대한 억제 전략이 전혀 없었습니까?

왜냐하면 확장 억제라는 말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어로 익스텐디드 디터런스(extended deterrence) 아닙니까? 확장된 억제니까 과거에 억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한 게 확장 억제 아닙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것은 미국이 만들어낸 개념인데, 그것은 미국이 자기들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전

략이 있고 그것을 다시 더 자기의 동맹국가들에 대한 핵의 위협에 대해서도 미국이 그러한 억제 전략을, 억제능력을 더 확대해서 제공해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용된 말입니다.

○委員長 劉承旼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중간에라도 받고 싶으시면 그때 가서 토의를 해서 보고를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똑부러진 결론을 내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 같습니다. 준비된 게 없다니까요.

○한기호 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예, 한 위원님!

○한기호 위원 이게 국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고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건 미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능 여부에 대한 것이 확정된 다음에 해야지.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제가 전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한미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그때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아직은 발전된 단계가 아니니까, 마치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게 맞는 것이지요.

○委員長 劉承旼 그러니까 원칙과 개념 정도밖에 없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 확장억제니 맞춤형 억제 전략이니, 이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이 국민들한테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지금 이런 궁금증들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임신을 했을 때 이름을 지어 놓았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이름이 안 맞아서 다시 이름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름도 주민등록 되기 전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거예요. 지금 아직 이름도 확정 안 된 거라고 봐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협의하다 보면 이름도 바뀔 수 있지.

○委員長 劉承旼 아니에요. 그건 양국 장관이 합의한 공동성명에 영어로 국어로 다 발표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문서는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렇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지금 북한 핵 문제가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는 그게 뭐냐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규백 위원 임 실장님 말씀을 그대로 원용하더라도 "맞춤형 억제 전략을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예.

○안규백 위원 그러면 '발전'이라는 이 단어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이런 얘기 아니에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건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발전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도 발전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맞춤형 억제 전략은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새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간의 우리 군의 북핵 억제 전략은 뭐였습니까? 또는 한미 간에 합의돼 있던 억제 전략은 뭐였어요?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그전에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해 준다 하는 그 수준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만 있었습니다.

○진성준 위원 그러면 그런 억제 전략 없이 기왕에 김태영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인사청문회에 나와 가지고 막 선제타격하겠다고 했던 겁니까, 북핵에 대한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전략 없이?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거기의 구체적인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전에는 한미 간에 합의된 그러한 대응전략에 대해서는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위원님들 정리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한마디만 더 추가하면 안 되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委員長 劉承旼 예, 하십시오. 간단하게 하십시오.

○안규백 위원 기존의 핵우산 제공을 지속을 했고요. 2006년도에 확장된 억제를 이미 실행하고 있고 2009년도에 이미 이런 용어가 나와 있습니

다, 맞춤형 억제 전략이.

○국방부국방정책실장 임관빈 예, 제가 한번……

○안규백 위원 공개된 장소에서 말씀이 곤란하면 이따 끝나고 해도 되고요.

○김재윤 위원 끝나고 하세요.

○안규백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劉承旼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보고는 오늘은 미결 상태로 그냥 둘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관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회의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합참의장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사항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짐작이 됩니다마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당선인한테는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충분히 보고가 됐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지금 인수위와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 劉承旼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정승조 예.

○委員長 劉承旼 예, 알겠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안보관계장관회의가 끝나는 직후에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대응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합참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김광진	김성찬	김재윤	김종태
김형태	백군기	손인춘	송영근
안규백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이석현	진성준	한기호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권기율
전문위원	구병회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임관빈
기획조정실장	김광우
전력정책관	유영조
법무관리관	임천영
정책기획차장	이종섭

합동참모본부

의장	정승조
전략기획본부장	원태호
북한정보부장	조보근
전력기획부장	강병주
전략기획부장	김진형
작전부장	김용현
전략정보부장	이친범

【보고사항】

○의안 회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김춘진·김우남·홍문표·김영록·이춘석·김윤덕·최규성·황주홍·윤명희·강기정·유성엽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한기호·정희수·김용태·김세연·김을동·정문헌·이철우·이인제·이노근·박성효·김종태·박대동 의원 발의)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기운 의원 대표발의)

(2012. 11. 27 배기운·김광진·주승용·심재권·강기정·김영록·김승남·김우남·정성호·양승조·최규성 의원 발의)

이상 3건 11월 28일 회부됨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 의원 대표발의)

(2012. 12. 6 신학용·이인영·안민석·김춘진·유승우·이상직·김우남·강창일·윤관석·김성곤·전해철·정호준·신경민·배기운·전순옥 의원 발의)

12월 7일 회부됨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형태 의원 대표발의)

(2012. 12. 7 김형태·한기호·김성찬·심재권·문대성·유승민·양승조·정수성·송영근·손인춘·유정복·유기준·김종태 의원 발의)

12월 10일 회부됨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갑윤 의원 대표발의)

(2012. 12. 13 정갑윤·이한성·김재경·정문헌·정희수·이진복·정진후·강길부·장윤석·송영근·이재영·안홍준·강석호 의원 발의)

12월 14일 회부됨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 12. 17 정부 제출)
12월 18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2. 12. 26 송영근·권성동·김세연·홍지만·황진하·황영철·한기호·남경필·서용교·김상민 의원 발의)
12월 27일 회부됨

지뢰제거업법안(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2013. 1. 2 송영근·한기호·손인춘·김종태·윤명희·조명철·황진하·김형태·정수성·류지영·유기준 의원 발의)
1월 3일 회부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3. 1. 8 손인춘·서병수·이상일·이인제·박창식·송영근·김성찬·유승민·김형태·김종태·유정복·유기준·한기호·신의진·김태흠·李宰榮·이자스민·이에리사 의원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손인춘 의원 대표발의)
(2013. 1. 8 손인춘·서병수·이상일·김종태·유정복·유기준·한기호·신의진·김태흠·송영근·김성찬·이자스민·이인제·박창식·이에리사·유승민·김형태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9일 회부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3. 1. 14 황진하·김춘진·이종진·노철래·정문헌·이명수·김종태·송영근·조명철·경대수·하태경·유기준 의원 발의)
1월 15일 회부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2013. 1. 25 한기호·권성동·김광진·김기선·김성찬·김세연·김영우·김용태·김종태·김진태·김형태·박덕흠·손인춘·송영근·안덕수·염동열·유기준·유승민·윤명희·윤상현·이강후·이이재·이철우·정몽준·정문헌·정희수·조현룡·최봉홍·홍문표·황영철·황진하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
(2013. 1. 25 김광진·김우남·이춘석·도종환·문병호·배기운·한기호·이석현·김성곤·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1월 28일 회부됨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2013. 2. 1 이명수·정희수·李宰榮·문정림·김태원·이노근·이이재·이장우·이헌승 ·김태흠 의원 발의)
2월 4일 회부됨

○의안 철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 의원 대표발의)
(2013. 1. 3 황진하·김춘진·이현재·김종태·이종진·하태경·송영근·경대수·정문헌·이명수·유기준·조명철 의원 발의)
1월 14일 발의자 철회 요구